

교육중심의 성경적 예배관 탐색

제출자 : 성경신학연구소 김 규 욱

(논문초록)

교육중심의 성경적 예배관 탐색

이 글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예배의 의식주의화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의 대안이 예배의 교육적 지향에 있음을 밝혔다. 한국 교회는 말씀의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교육을 통한 ‘삶의 전영역에서의 영적 예배’보다는 ‘예배당이라는 구획된 공간에 갇힌 의식주의적 예배’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의식주의화되어 가는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는 크게 보아 구약과 신약의 복음적 관련성에 대한 성경해석상의 오류로부터 말미암는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로서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설명하는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로 바뀐 것이다. 영적 예배란 말씀을 잘 깨달아 지혜롭게 생각하며, 은사대로 성도들을 봉사하는 인격적 삶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누고 섬기는 천국생활의 모형이다. 영적 예배와 기독교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성경이 강조하는 예배자체가 인간 변화의 과정을 함축하는 교육지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의식주의화된 예배, 영적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영적 예배의 교육지향성

목 차

- I. 서 론
- II. 의식주의화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비판적 반성
- III. 성경적 예배의 기초와 교육의 필연성
- IV. 영적 예배의 교육지향적 성격
- V. 한국교회 예배개혁의 방향
- VI. 결론

I. 서론

예배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관과 인간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교회 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된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의 예배관과 구체적인 관행은 성경적인가?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벗어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의식주의적 예배를 비판하면서 말씀 중심의 교육지향적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관행은 다시 가톨릭 교회의 오류로 다시 회귀하고 있어 보인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묶인 편협적인 예배관행이 만연되고 있으며, 말씀중심이기 보다는 예전적인 의식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목사가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예배를 집전하는 중심인물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경적 신앙의 심각한 탈선이다. 그 오해의 본질과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을 질문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가며 의식주의화 되어가는 한국교회 예배의 구체적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성경적 예배의 기초는 무엇이며 교육과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셋째,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예배는 어떤 점에서 교육지향적인가? 넷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에 비추어 한국교회 예배관행에 대한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상의 질문들을 검토하면서 보다 성경적인 예배관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의식주의화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비판적 반성

오늘의 한국교회의 예배 실태는 가톨릭의 의식주의적인 예배형태를 비판하고 개혁했던 종교개혁의 정신과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인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미리 문제를 규정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의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교육을 통한 '삶의 전 영역에서의 영적 예배'보다는 '예배당이라는 구획된 공간에 갇힌 의식주의적 예배'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명백히 종교개혁 정신의 퇴색을 의미하며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이다.

1. 종교개혁적 관점의 중요성

종교 개혁의 알맹이는 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말씀의 본령에서 떠난 가톨릭의 의식적인 예배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말씀 교육¹⁾을 중시하는 예배를 강조한 운동이었다. 개혁자들이 불배 제사장과 동일시되는 사제들, 그들이 집행하는 의식적 미사 그리고 성당이라는 특정 공간의 신성화는 복음진리에 대한 철저한 무지의 소치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영원한 속죄를 무효화하는 비성경적 행태였다. 개혁자 칼빈은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는 복잡다단한 형식적인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적 그

1)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로마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의식주의화 되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장, 10장) 또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교회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칼빈은 지상의 교회는 설교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배우지 않고서는 자랄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림자이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체적으로 즉 영적인 방식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보았다.²⁾(골 2:16-17; 히 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적 차원의 의식적 제사로서의 미사를 집행하는 것은 반복음적 형태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 점은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구약과 신약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성경해석학적 입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종교개혁의 비판적 돌파력과 복음적 생명력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의식주의적 요소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복음 진리의 영적 생명력의 발견에 있다.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의 관점은 신앙적 유산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성 개혁하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문제제기 한대로 오늘날의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이 점차 형식적인 의식주의화로 변질되어 감을 말했다. 이 절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함인가? 그런 현상의 계속되는 악화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모든 드러난 교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릇된 성경 해석의 결과로 말미암는다. 따라서 모든 교회 문제의 해결 모색은 그 문제에 대한 보다 올바른 성경해석학적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의식주의화되어 가는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는 크게 보아 구약과 신약의 복음적 관련성에 대한 성경해석학의 오류로부터 말미암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미숙한 이해로 말미암는다. 이하에서는 성경해석학적 혹은 성경신학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경적 대안을 밝혀가기로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는 구약과 신약이 계시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다.³⁾ 달리 말해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구약적 계시의 방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다는 것이다. 특히 히브리서(8장)가 증거하는 대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신약의 영원한 제사인 그리스도 사건의 모형과 그림자이다.(히 8: 5)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로서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신약의 그리스도 사건 역시 구약의 그림자적 배경속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서로 간에 상호 보완 혹은 상호 지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해석의 틀이 그 자체 안에 불박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의 발언, 즉 “이 성경(구약을 지칭)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 39)에 의해서 더욱 확증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성경은 여하한 외재적인 해석(extrinsic interpretation)을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명제, 즉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원칙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2. 구약제사의 복음적 이해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오해는 구약 제사에 대한 해석학적 오류로부터 말미암는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요소를 필요하다. 즉 제물, 성진, 제사장이다. 이 세가지 요소는 위에서

2)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17)

3) 박용기 저 『성경신학개론』은 신구약 성경의 의미가 언약과 성취라는 핵심개념에 의해 그 통일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언급한 해석학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설명하는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구약의 제물로서 사용된 제물의 여러 종류들 즉 양, 첫 새끼, 십일조, 헌물 등은 모두 영원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림자요 예표로서의 기능을 감당했다.(출 19: ; 레 1:-10:)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각에서는 신약시대의 헌금이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이해되거나 강조되고 있기도 한다. 특히 십일조는 이미 헌금의 대명사로 정착되었다. 더 나아가 십일조 헌금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처럼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약의 말라기에 나오는 십일조가 이 땅에 속한 세상적 복을 받게 되는 상업적인 거래방식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성경해석의 오류이며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다. 십일조는 구약에서 드러지는 성물, 즉 제물의 일종이며(레 27:30~33) 이것이 정상적으로 드러지지 않을 때 구약시대 제사행위가 불가능하며 그 결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 또한 레위기(27장)가 언급하는 대로 양 열마리 중에서 한마리를 대표로 드림으로 나머지 모두를 속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택한 성도의 대표로 드러지실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임이 분명하다. 이른바 대표적 기능(representative function)이었다. 이러한 배경적 의미를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십일조를 강조한다. 십일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는 복이 온다는 것이다. 이는 구약 시대에 제물의 일종이었던 십일조를 통해 구약의 제사행위가 가능했고,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구약적인 의미의 복의 수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해석의 오류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요 예표이다. 이를 오늘날 십일조 헌금을 내면 세상적 복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범주착오이다.⁴⁾ 영원한 십일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즉 제물의 일종인 십일조가 되시는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진바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성도가 풍성하게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 말라기의 예언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신약의 헌금은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의 한 요소인 제물과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다. 신약시대의 헌금 혹은 연보는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누리는 신앙적인 삶의 방식이다(고후 8:).⁵⁾ 이점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는 삶 그자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산 제사이다(롬 12:1).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의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

두번째 구약적 제사의 요소인 성전의 복음적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가 어떻게 퇴색되고 의식주의화되어 가는가?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그 죄를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장소로서 거룩시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했던 성전을 헐라고 하신다. 그리고 삼일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다.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요 2:20~22).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예표한 것

4) 김인환, 『십일조 신학』에서는 십일조가 구약적 의미의 율법적 기능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십일조가 온전히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5) 이때의 가난과 부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겪었던 영적 빈곤과 부요를 일차적으로 의미한다.

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신약의 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은 없어졌고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삶 자체가 영적 성전으로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엡 2:21~22) 그러므로 집회의 장소로서의 건물이 구약의 성전처럼 이해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강단이 마치 구약의 제단처럼 이해되고 치장된다. 아예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것 역시 구약성전의 성취사건인 그리스도의 부활진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이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묶어 놓는 의식주의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구약제사의 요소인 제사장에 대한 오해는 더욱 심각하게 보여진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 반차를 따르는 사람으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 이는 히브리서(7장)가 증거하는 대로 아론 반차보다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승천의 복음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어 놓은 새롭고 산 길(히 10: 20)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컨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승천에 대한 그림자적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의 직분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오해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훼손이다. 개혁자들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가톨릭의 사제 제도가 개신교 안에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왜곡사건이다. 목사는 결코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한 반열이 될 수 없다. 목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이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도 강조한 대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벧 2:9). 목사를 구약적 제사장의 위치에 두려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는 두려운 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제사의 세가지 요소인 제물, 성전, 제사장은 각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응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일반적 경향은 제물을 헌금으로, 성전을 교회당 건물로, 제사장을 목사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약제사제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예배는 복음적 내용은 상실되고 외형적 형식을 강조하는 의식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다. 즉 예배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예배당 밖의 삶의 영역은 예배에서 제외된다. 예배당 공간에 갇힌 폐쇄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 그 결과 예배와 삶의 분리 현상이 생겨난다.

이는 무속적 의식 구조를 가진 한국인의 심성과 절묘하게 친화력을 가지면서 더욱 강화된다. 무속적 신앙도 역시 일상적인 삶과 무속 행위가 뚜렷이 구분된다. 평상시는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사태에 봉착할 때 무당을 통해 신을 불러낸다. 무당은 가져온 제물과 자신의 곳 행위를 통해 신의 진노를 달랜다. 당사자는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인격적 교육과 깨달음이 필요 없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적 위로가 중요하며 거기서 돌아오면 신앙과 분리된 삶이 다시 영위된다. 의식주의화된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삶이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신앙의 양태로서는 삶의 전영역에서의 성경적 예배의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III. 성경적 예배의 기초와 교육의 필연성

위에서 논의한 의식주의적 예배가 지닌 문제의 핵심은 예배가 구약에 나타나는 의식적 제사행위를 신약에 그대로 잘못 적용하는 범주착오를 의미한다. 이는 구약의 제사 의식을 복음적으로 승화시켜 해

석하지 못하는 성경해석적 오류에서 기인함을 밝혔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로 바뀐 것이다. 잘라 말해 신약시대의 예배는 결코 의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진정한 성경적 예배의 기초와 교육의 관련성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

1.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구약의 제사제도와도 달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예배는 무엇에 기초하고 무엇을 통해 참된 예배행위가 가능할까? 우선 신약시대 예배는 전적으로 예수께서 드리신 예배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열납되고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이방종교의 예배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제되고서는 기독교적 예배는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그 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결과 경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의 노예이다. 즉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형식으로 드러난다.

표면적으로 어떤 대상, 즉 그것이 어떤 위대하게 간주하는 인간 혹은 사물일수도 있는 대상을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섬기는 행위가 우상숭배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행해지는 일체의 그릇된 예배행위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한다.(롬 1: 25)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함(엡 5: 5)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는 실상 인간 내면의 죄악상, 즉 탐욕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점이 진정한 성경적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적인 삶으로부터 환산간도 떠날 수 없다. 그것은 인간 존재자체가 피조물로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경배하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도록 지어져 있다. 칼빈이 현상을 이를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주장했다.(칼빈, 1권: 90)

그런데 그 종교의 씨앗이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릇된 방향으로 자라난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로 나타난다. 목회 주제와 관련지어 말하자면 거짓예배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우상숭배 행위는 실상 인간 내면의 탐욕, 즉 자기 숭배적이고 자기 영광추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어 올바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자 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 9)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이를 통해서만이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모든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령인 것이다. 이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영광에 관한 증거를 담고있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은 예배의 핵심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2. 성령을 통한 예배

신약 성도들 심지어 사도들 까지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개혁자 칼빈이 강조한대로 모름지기 예배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칼빈, /1987 1권 :77-133)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알때 자연 발생적으로 예배의 행위, 즉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 진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예고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얼마 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예고해 주시는 데도 제자들은 누가 왼편,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라는 세속적인 의미의 영광을 구했다.(막 10: 32-45) 즉 사도들은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두철미 세속적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진정한 예배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예배관에 잘 나타나 있다. (요한 4: 20-24)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생수가 되심을 가르쳐 주신 다음 곧바로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는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신약적 예배와 불가분의 상관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확실한 증거이다. 당시 수가성 여인은 이미 예수가 구약의 언약을 따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적 의미의 예배관에 사로 잡혀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4: 20)” 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1-24)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특정 공간에서 드렸던 예배,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 그리고 제사장들의 행위를 통해 드렸던 구약적 의미의 의식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즉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될 것을 아시고 신약적인 의미의 신령(spirit)과 진정(truth)의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교육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이다.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사도들도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를 진정 메시야로 알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요 14: 17)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고 하는 언약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이며 그리스도는 실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능력과 신실성 그리고 자비성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약속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오신 예수그리스도와 그를 진정으로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예배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⁶⁾

3. 예배와 교육의 관련성

여기에 예배와 기독교 교육의 특이한 관련성이 있다. 기독교 교육은 세속교육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 현상적으로 인간 교사가 성도 혹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근본 교육의 주체는 성령이심을 믿는다.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의 눈을 띄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며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한대로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전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에 성령의 사역에 의한 기독교 특유의 교육 중심의 예배관이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교육이란 학습자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일체의 사역을 의미한다. 이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하자면 알게 하는 사역인 교육없이 예배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는 교육중심적일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모르는 대상을 예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는 성령의 조명과 사역이 필요하며, 과정적으로는 교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지 않고서는 인간에게서 결코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죄인이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영광, 자기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중심의 예배가 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무속적 예배 혹은 의식주의적인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불필요하다. 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기만 하면 된다. 신에 대한 구체적인 배움과 진지한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치 않다.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도바울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바울은 아덴의 신당에서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아덴 사람들을 보고는 신앙적 의분이 끓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

6) 이때 개역성경의 번역인 '신령과 진정'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이다. 이는 영과 진리(spirit and truth)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행 17: 22-25).”

이 당시 헬라 신당에서의 예배는 인간들의 상상에 의한 만들어진 온갖 인조신들을 섬기는 형태였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있었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맹목적이고 허탄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한 것이다. 바울이 가르쳐준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행 17: 24)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이런 신이 진정 성령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지은 공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되 만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역설했다. 이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될 때 예배는 이방종교처럼 인간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인 셈이다. 이일을 위해 예수가 구약 언약대로 오시고 성령 역시 찾아오신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 예배는 인간 편에서 기획되거나 시작되는 인간적 행위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교육작품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일반적으로 예배의 3대 요소라 불리우는 설교와 찬송, 그리고 기도에 비추어 정리하고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엄밀히 말하자면 설교 즉 말씀증거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천이며 실제 예배행위란 찬송과 기도로 압축된다. 찬송이란 흔히 이해하는 대로 형식을 갖춘 음악적 행위를 뜻함이 아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생겨나는 감격적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하는 삶이 가능했다. 기도란 이방종교에서처럼 특정 공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신에게 빌어대는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그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자기 뜻을 포기하는 과정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추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뜻한다. 양자는 모두 특정 시공간에서 형식을 갖추고 이루어지는 의식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인격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근본적 태도와 지향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예배의 핵심 요소인 찬송과 기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진리의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하게 된다.

IV. 영적 예배의 교육 지향적 성격

우리는 이 절에서 앞에서 논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하여 왜 기독교의 영적 예배가 교육지향적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II절에서 한국 교회의 일반적 경향이 복음의 내용을 상실해 가는 의식주의화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결국 성경에 대한 해석의 미숙과 복음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로 귀착된다. 의식주의화란 앞의 논의에서 확인한대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깨달음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의식에 참여케 하는 행태를 뜻한다. 이는 기독교의

사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행했던 의식적인 제사 제도를 온전히 성취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 보기로 하자. 로마서(12장)은 신약의 성도가 드리게 되는 예배는 신당에서 드리는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설명한다.

1. 영적 예배의 의미

로마서에 나타난 영적 예배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전체 일개를 전제하고서라야 가능하다. 로마서는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서언적 내용으로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서 복음의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 1장 18절에서 3장 20절 까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임을 심도 있게 거론한다. 여기서 율법이 거론된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롬 3: 20) 그런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율법아래 정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성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밝힌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영광을 노래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기초이다. 이런 복음에 대한 설명이후 네 번째 부분인 ‘성도의 신령한 예배의 삶’에 대한 권면이 12장부터 끝까지에 나온다.

정리하자면 타락하여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허탄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된 것이며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경외할뿐 아니라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른바 ‘산제사의 삶’으로서의 영적 예배가 가능케 된 것이다.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서두의 “그러므로” 라는 인과접속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전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죄인을 거저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그러므로’ 이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섬기는 영적 예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 로마서 12장이후에 나타나는 “영적 예배를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은 오히려 무거운 규범이요 짐이 된다.

로마서(12장)에 의하면 영적 예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갖는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이며, 둘째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일이며, 셋째 각 지체의 은사대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일이다.(롬 12:1~21) 이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예배란 말씀을 잘 깨달아 지혜롭게 생각하며, 은사대로 성도들을 봉사하는 인격적 삶을 뜻한다. 이것이 구체적인 기독교의 예배의 내용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천국생활의 모형이다. 이는 예배를 의식의 절차를 따르는 예전적인 것으로 이해해온 가톨릭적 미사로서의 예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의식주의화된 예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다.

올바른 하나님 지식에 근거한 인격적 삶으로서의 예배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과거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유혹아래 죄의 중노릇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으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난 인생이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지체의 삶이 된 것이다.(갈 2: 20) 자기 영광과 자랑을 위해 살아가던 옛사람으로서의 옛자아는 십자가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게 붙은 바 된 지체가 되어 새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지체로서의 삶은 믿고 나서도 성령의 인도에 의해 부단히 지속된다. 이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이라고 한다. 바울은 이를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라(빌 1:19-20).”

요컨대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으로서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자기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삶으로부터 전환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목적을 위하여 옛사람 즉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새사람 곧 영의 소욕은 살리는 변화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찾아오셨고, 성도 안에 이일을 성취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런 신령한 차원의 급진적인 변화는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일이며 그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이 성경안에 개진되어 있다. 이런 차원의 가르침은 결코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르침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전 2: 6-13) 이는 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으로서만이 알 수 있는 하늘 차원의 진리이며 영생의 말씀이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인 영생의 말씀의 부단한 공급을 통해 이루어져간다. 여기에 체계적인 성경 교육의 필요성과 지속성이 요구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형식적인 제사행위가 주된 예배의 요소를 이루는 무속적 이방종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깨달음과 변화의 과정이 중요시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위에서 밝힌 대로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 즉 깨달음으로 부터 시작되기에 진리에 대한 배움이 참된 예배의 절대적 조건으로 요청된다. 배움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 없이는 생각의 변화 인격의 성숙은 없다.

2. 영적 예배의 교육지향성

우리는 여기서 모든 이방종교의 무속적 혹은 의식적 예배와 기독교의 인격적 변화로서의 영적 예배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양자의 뚜렷한 차이와 대비를 통해 예배와 교육의 관계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방종교의 예배는 일상적 삶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신당을 지어놓고,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사제나 혹은 무당을 통해 신에게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원하는 욕구를 이루어 주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신의 절대적 뜻을 배우거나 깨닫는 것은 필요치 않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신의 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신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만족해하는 무엇이 결핍된

존재이며, 스스로의 주권에 의해 역사를 진행시키는 역사의 주재자가 아니라, 인간의 요구와 정성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이어서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거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행 17:24~25). 따라서 기독교의 예배행위란 인간의 것을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과거 자기욕망적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진정한 변화의 삶이다. 이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토대위에서 가능하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이웃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의 양식이다. 양자는 근본적인 방향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방종교의 예배는 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기독교의 예배는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요컨대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한 자기 변화를 함축한다. 이때 자기변화란 옛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한 ‘산제사로서의 영적 예배’를 설명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롬 12: 2)”라고 증거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적 예배는 전에 타락한 상태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숭배하려던 이 세대의 가치관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는 예배자체가 인간 변화의 과정을 함축하는 교육지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구약, 특히 선지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구약학자 부루그만(W. Brueggemann)에 의하면 선지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 지배 언어의 세계를 파괴하며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부루그만, 1982/1999: 90-145) 그것은 당대 제왕 중심의 합리성을 비판하고 전복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교육적인 과제는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예언언어를 가르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통과 치유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을 전제한다. 하나님은 옛 세계의 잔해와 부스러기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부루그만은 구약의 근거로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근거로 사용한다.(부루그만, 1982: 119-123) 예레미야는 파괴하고 뽑는 행위와 더불어 건설하고 심는 행위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렘 1: 1) 무너지게 해서 세워가시는 일이다. 이는 정확하게 교육의 속성을 그려내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교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옛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새사람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적 예배가 정확하게 이런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성도가 모이는 교회당은 엄밀히 말해 이방종교에서처럼 신에게 제사하는 신당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라는 교육적 개념으로 보는게 합당하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교회 교육은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간의 교제와 교회회의를 포함한 모든 교회생활의 국면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보아야 한다. 성도간의 교제는 말씀안에서 서로의 성숙을 지향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풍토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며, 또한 서로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골로새서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를 언급한다(골 3:16).

교회에서의 회의도 실상은 포괄적인 의미의 예배적 혹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의 회의는 일반적 회의의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교회 회의는 단순히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행위가 아니다. 성숙한 교회는 일 그 자체의 성취보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회의는 구체적 일의 결정을 위한 것이며 다시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를 배워감을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목적적인 계열이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 연관 속에서 볼 때 교회회의는 일 자체의 합리적 처리를 훨씬 넘어서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성숙한 신앙적 회의는 일의 도모와 처리를 위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함으로써 무엇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성찰해 가는 과정이 중요시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신앙적 판단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

요컨대 교회의 회의도 교육적인 의미 연관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위치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교회됨은 설교와 교제 그리고 교회회의가 모두 서로의 신앙적 성숙을 돕는 교육적 지향성을 가지고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교회는 모든 임무 수행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이 성숙해가는 교육화 작업이 이루어 질 때 가장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V. 한국교회 예배개혁의 방향

1. 교회의 본질적 사명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증거와 투쟁에 있다. 교회론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사명이 말씀을 가지고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이때 투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엡 6: 12). 이를 달리 말하자면 진리싸움이란 보이는 권세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권세와의 싸움이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안의 육신의 소욕을 의미한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권세와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며,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수고가 가능할 것이다.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고전 15: 31)에서 우리는 이 싸움의 치열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싸움에 대해 정의 내리기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전 9:26~27)고 함으로써 싸움의 대상이 육신적 자기 자신임을 명백히 했다.

진리증거와 진리투쟁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은 신약의 후반부로 가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선한 군사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것을 촉구한다. 베드로전후서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며 진리안에 굳세게 설 것을 당부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진리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과 배움의 열정을 통해 자신과 부단히 싸워가지 않는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망각한 셈이 된다. 바울이 권면한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딤후 3:14) 즉 교육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기독교는 맹목화되고 무속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기독교의 영적 생명력의 박탈을 의미한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예외없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는 의식주의화 된 가톨릭교회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그들의 주된 개혁 작업은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러한 교육에의 강조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성령강림이후 사도들은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고(행 5: 42), 바울의 행적을 살펴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는 한 장소에서 몇년씩 성경을 가르쳤고(행 9: 10),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다(행 28: 23). 바울의 복음증거의 방식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전천후

작업이었다. 옥중에서도, 셋방에서도 거침이 없는 교육활동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진리증거와 전승 그리고 투쟁은 반드시 교육이라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국교회 예배의 개혁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교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제언

(1) 예배의 근본 전제로서 ‘하나님 바르게 알기’

기독교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먼저 올바른 예배의 전제조건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라는 데서 확인된다. 예배는 맹목적인 열심 혹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는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의 교육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진리가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예배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개혁은 이렇게 해야한다 라는 당위적이고 현상적인 처방에 앞서 기본으로 돌아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심도있게 이해하는 성경해석학적 선결작업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만큼 삶속에서 진정한 예배는 가능해질 것이다.

(2) ‘예배당에서의 의식적 예배’로 부터 ‘삶의 전영역의 영적 예배’로의 전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방종교의 예배와는 현격하게 구분되는 점이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주관자이시다. 이점에서 예배는 결코 예배당 안에서 국한될 수 없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문화 활동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우는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삶의 전영역이 예배적 삶으로 이해될 때 성경적 예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예배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보편적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시간이나 특정 공간에 결코 한정될 수 없다. 무소부재하신 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시공간에 한정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쳤다.(고전 10:31)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적인 삶이란 특징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의식이 아니라 성도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예배당 생활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 간에 깊은 친교와 섬김의 삶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 토대위에 삶의 전 영역으로의 예배가 가능해질 것이다.

(3)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 증거하는 ‘중’으로 이해해야

목사는 결코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장적 역할이 아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가능하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를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존재이다. 목사는 그

런 의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이 결코 아니다. 목사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소중한 하나의 직분이다. 따라서 성도들도 목사를 그 이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목사는 예배의 주체도 중심 인물도 아니다. 예배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며 목사는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일뿐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높이는 개혁교회의 기본 정신이다.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종으로서의 정당한 자리매김과 이해는 예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다.

(4)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성도가 사용하는 소중한 ‘사용장소’일 뿐

예배당은 오로지 예배드리는 유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당이라는 표현 보다는 교회당이라는 표현이 더욱 좋다. 예배는 교회당 뿐 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어디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배당은 결코 구약적인 의미의 성전이 될수 없다. 그것은 구약 성전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훼손하는 엄청난 오류이다. 이 말이 주일의 예배당 신앙생활을 조금도 약화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히려 예배당 신앙생활의 충실성이 전영역의 삶의 예배를 가능하게 할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공간이라는 명제는 마땅히 강조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5) 헌금은 ‘구약적 예물’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귀한 ‘방편’

헌금(연보)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한국교회가 병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성도들이 행하는 연보는 구약적인 의미의 예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소중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헌금은 구약의 예물처럼 누구에게 갖다 내는 것이 아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의미있게 쓰는 것이다. 이런 신앙적인 주체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길이 없다. 이점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구체적인 교회개혁이 가능해 진다.

VI. 결 론

이 글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예배의 의식주의화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의 대안이 교회와 예배의 교육적 지향에 있음을 밝혔다. 교회의 핵심 과제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음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드러난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신 교육의 원형을 보여준다. 열두제자를 삼아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 바울 역시 치열한 교육운동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죽을 무렵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역시 자기가 가르친 복음의 진수를 충성된 자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당부함(딤후 2: 2)으로 교육을 통한 진리의 수호와 계승을 절실히 원했다.

이러한 교육의 정신은 중세 천년을 거치면서 사라졌고 기독교는 의식주의화되고 이방종교화 되었다. 이는 구약의 제사 의식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모형과 그림자라는 복음의 기본 원리를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오류였다. 그 결과 ‘삶으로서의 영적 예배’가 ‘특정 신성화된 공간에서의 무속

적 의식'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이를 개혁하고 나온 것이 성경교육 중심의 16세기 종교개혁이었다. 칼빈을 위시한 개혁자들은 예배의 의식주의적 요소를 타파했고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다. 개혁의 진원지는 언제나 성경을 치열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로서의 교회였다.

이때 기독교교육의 주관자가 언제나 성령이시라는 것이 중요하다. 아담 타락이후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자기숭배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된 삶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아래 옛사람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 새사람으로 변화 되어 감으로써 진정한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영적 예배와 기독교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기 변화를 함축한다. 즉 옛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사람으로 변화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한 '산제사로서의 영적 예배'를 설명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롬 12: 2)" 라고 증거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적 예배는 전에 타락한 상태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숭배하려던 이 세대의 가치관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살아가기를 가르친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는 예배자체가 인간 변화의 과정을 함축하는 교육지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적 예배의 삶이란 일상의 삶을 초월하는 도피주의적 혹은 신비주의적 삶이 결코 아니다. 영적 예배의 삶이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자신의 허탄한 욕망을 부정해 가는 삶이다. 즉 속사람의 기쁨을 누리면서 옛사람을 쳐 복종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즉 가정, 직장, 교회, 문화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이다.

이런 영적 예배는 성령께서 인도아래 이루어지는 성경을 부단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성경적 예배와 교육의 필연적 관계가 있다. 교회사에서 진정한 예배가 탄생하고 유지된 것은 언제나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적 전통이 살아날 때였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교회사에서 면면히 이어온 치열한 교육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염려스런 수준에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신앙적 태도만 갖추어져 있다면 오히려 한국교회는 개혁을 지향하는 소망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개혁의 구체적인 활동이 교육의 활동임을 확인하였고, 그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선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 글은 적어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열(1999), “ 개혁신학적 예배원리에 기초한 한국교회의 예배갱신” 『총신대논총』 18집 129-153.
- 김규욱(2004),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윤리학』, 서울: 진리의 말씀사.
- 김규욱(2008), 『신학의 혁명』, 서울: 진리의 말씀사.
- 김운용(2010), “신학적 행위와 종말론적 예술로서의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 『장신논단』 제 39집 297-324.
- 김영한(1995),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김영한(1998), 『21세기와 개혁신학: 포스트모더니즘과 개혁신학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인환(2001), 『십일조 신학』,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 김재성(2001), 『개혁신학의 광택』, 서울: 이레서원.
- 김재성(2003), 『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이레서원.
- 박용기(1989), 『무엇인가』, 서울: 진리의 말씀사.
- 박용기(1997), 『성경신학개론』, 서울: 진리의 말씀사.
- 이승구(1999), 『개혁신학탐구』, 서울: 하나.
- 장상호(2005), 『학문과 교육 (중 I):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일웅(1993),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 정일웅(1993), 『교육 목회학』, 서울: 솔로몬.
- 정정숙(1983),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 한춘기(1999), “ 예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 『총신대 논총』 제 18집, 155-173.
- Brueggemann, W.(1982). *The Creative Word : Canon as Model for Biblical Education*. 강성렬·김도일 공역. 『창조적인 말씀을 통한 기독교교육』 서울: 한들.
- Calvin, J.(1986).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흙·신복윤·이중성·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 상,중,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 Greidanus, S.(1999/2002).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김진섭 & 류호영 & 류호준 역.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의 현대적 해석학 방법론』 서울: 이레서원.
- Goldsworthy, G.(2000/2002)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김재영 역.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McGrath, A. E.(1985/1992).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박종숙 역. 『종교개혁사상입문』 서울: 성광문화사.
- Vos, G.(1948/1985). *Biblical Theology*. 이승구 역. 『성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abstract)

A Reflection on Education-Centered Biblical View of Worship

It is pointed out in this short article that ritualism is the main culprit of the current problems long resident in many Korean churches and the Biblical education is recommended as resolution of the problems. Teaching and learning must be given the priority of the Church's ministry as shown in Jesus' life and ministry. The model education method that Jesus showed is free from formalities: He chose 12 disciples and shared life with them t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postle Paul is also a great educator. However the lofty mind set for the truth-centered education had slowly dimmed out through the medieval darkness of the Christianity. Ritualism and formalism replaced the biblical education in Church ministry.

Sacrificial rites of the Old Testament is just a shadow of what is fulfilled in Jesus Christ in the New Testament. Lack of such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gospel, however, is the root of the current abnormality prevalent in churches today.

As a matter of course, the worship service has been degraded from the spiritual worship in our daily settings as intended by Jesus to the shamanist ritual in a sacred place.

The Reformation of 16th century was an urge of the reformers to go back to the teaching on the Bible. Reformers, such as Calvin overthrew ritualism which had long been smudging the worship service but made every effort to place the Bible at the center of the worship. The epicenter of the Reformation was always the church teaching and learning the Bibl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superintendent of the Christian education has always been the Holy Spirit. Since the Fall, human reason has permanently been damaged thus man cannot capacitate to reach the knowledge of God by himself. As results, all men live to pursue their own glory and their ultimate purpose is worshipping themselves. The Bible defines such life as sin: sinful life of those who do not know God.

However, the believers live a life of living sacrifice as they take off the old flesh and transform into a new creation by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ho is the Spirit of the truth. It is the life of the spiritual worship in spirit and truth.

Spiritual worship and Christian education are inseparable. The goal of the Christian education is to guide the believers to mature and reach Christ-likeness: it connotes transformation from the old flesh to the new creation. Romans 12:1 says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The spiritual worship is the process of refraining from following the values of this world and loving oneself but of changing into Christ-likeness. It is the essence of spiritual worship.

However, the life of spiritual worship does not mean a life of escape from the world. It rather is a life of acknowledging God's gracious glory which shines upon one's daily life and denying one's fleshy desires in every situation of life. In other words, it is a life of rejoicing inner person and submitting old flesh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 every aspect of life, family, workplace, churches and culture, believers can enjoy intimacy in their daily fellowship with God and they can also enjoy His grace and blessings through service of others, not themselves. This is the life of spiritual worship of which only the Holy Spirit can make possible.

Key Words : spiritual worship, Ritualism, daily fellowship with God, living sacrifice

